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 ‘희망’ 선물한 참 종교인

### 맑고향기롭게·김수환추기경연구소·대화문화아카데미 종교간 대화의 장 마련 눈길

# “법정 스님(1932~2010)과 함께하면 격식이 없어 시간과 거리개념을 초월했다. 가톨릭 신자인 나는 2000년 관음상을 길상사 마당에 세우면서 종교의 경계를 떠나 일체에 여여한 법정 스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최근 사회의 심난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진다. 두 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저 너머 무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죽음을 초월한 여유와 ‘희망’이라는 선물일 것이다.”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을 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대한성공회 김성수 대주교

우리시대가 원하는 참종교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법정 스님·김수환 추기경·강원용 목사 같은 ‘참 종교인’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떠난 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이 보여준 존중과 화해, 상생과 평화의 메시지는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었다.

부, 기독교수협의회 회장 이정배 교수가 종교와 종교간 평화, 한국사회의 평화를 모색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원불교 중앙종도훈련원장 이선중 교무는 종교본연의 모습 회복을 주장했다. 이선중 교무는 “큰 것, 큰 법당, 많은 신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세 어른은 편안함을 버리고 세상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이선중 교무는 “고독한 구도자의 삶, 헌신적인 삶을 실천으로 옮기는 종교인들이 많아져야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체에 여여했던 법정 스님 고결한 품격의 김수환 추기경 종교간 협력 다진 강원용 목사

맑고향기롭게(이사장 현장), 김수환추기경연구소(소장 고준석),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는 6월 30일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2층홀에서 ‘참 종교인이라 바라 본 평화’를 주제로 불교·개신교·가톨릭·원불교 성직자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 1부에서는 생전 참다운 행복과 종교간 대화를 이끈 법정 스님·김수환 추기경·강원용 목사와 함께 했던 종교인들이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한국에 미친 영향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평화를 위한 이웃종교간 어울림’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과 원불교 중앙종도훈련원장 이선중 교무, 서울대 교구청 복음화 사목국 차장 양해룡 신

이날 토론에서는 개신교의 계급적 특성, 폐쇄성, 배타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기독교수협의회 회장 이정배 교수는 “개신교는 내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해야 할 때”라며 종교의 권력화에 심각성을 인정하고 개신교 내부의 자성을 요구했다.

서울대교구청 복음화사목국 차장 양해룡 신부는 일부 종교지도자 뿐 아니라 일반 신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해룡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의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기에 지금의 김수환 추기경이 있는 것이다. 내적으로 희생과 사랑과 봉사, 이름 없는 서민들이 한국 사회를 튼튼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종교들이 모여 참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평화를 위해서 그 씨앗을 심고 가꿔야 하지만, 씨앗을 아예 심지도 않거나 늘 평화를 얘기하면서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나존자를 찾아서

# 포교도 봉사도 “피곤하지 않아요”

### 군부대 돌며 전법에 여념 없는 조계종 포교사 이재상씨



“힘들지 않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려고 반짝이는 기운들을 느끼면 쌓여있던 피로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조계종 전문포교사 이재상(사진)씨는 주중에는 은행원으로 바쁘게 생활하고, 주말이면 군법당과 조계사 지역법회 상임 포교사로 활동한다. 10여 년 간 꾸준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지만 그는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끼 본 일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불자로 지내던 이재상 포교사는 어느 날 좀 더 전문적으로 불교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불교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서 포교사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고, 2년 동안 주말도 없이 공부한 결과 2000년 3월 일반 포교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재상 포교사는 흥천 76사단, 양평 20사단 등에서 포교사로 활동 중이다. 군법당에서는 장병들이 법회 때 졸더라도 군이 깨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재상 포교사는 졸고 있는 장병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깨운다. 아무리 피곤해도 부처님 말씀을 배울 때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훈련에 지쳐서 피곤한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늘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포교사는 일반 포교사 자격 취득 후에도 꾸준한 노력 끝에 2007년 10월, 전문 포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한다. 2007년은 전문 포교사 1기가 배출된 해이다. “포교사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면 교감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기본인데, 전문 포교사로서 활동하다보니 그런 것들이 더 원

할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반 포교사 시절에는 제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져있었던 면이 있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소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상 포교사는 매월 한 차례씩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선다. 봉사활동은 1981년 처음 은행에 입사한 뒤 ‘은행 불자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 아동들을 보면서 윤화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쟁도 윤회도 아직 잘 모르는 아이들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장애 아동들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이재상 포교사는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한다. 30여 년을 이어온 봉사활동 끝에 그는 이제 좀 더 철이든 자신의 모습을 느낀다.

이재상 포교사는 은퇴 후에도 부처님 말씀에 대한 공부와 봉사활동, 포교는 지속할 계획이다. 봉사는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봉사는 진심이 중요하합니다.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참여하면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 속세 찌꺼기, 음악으로 씻어요

### 전통불교문화원, 7.29~31 음악템플스테이

개원 2주년을 맞은 공주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이 휴가철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무직사위 템플스테이는 7월 29~31일 클래식 음악 공연, 음악과 명상을 접목한 프로그램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29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김이곤 음악감독(유클래식 대표, 극동아트센터 음악감독)이 진행하는 ‘Funny! Funny! Classic!’로 시작한다. 김이곤 음악감독의 설명이 곁들여져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박현숙 숲해설가의 자연소리듣기 체험이 진행된다. 같은 날 저녁에는 미니 클래식 콘서트도 진행된다. 31일에는 한국차명상학회 상임이사 지장 스님의 ‘찾잔 위의 클래식’이 마련됐다.

참가비는 2인 가족 35만원, 3인 가족 50만원, 4인 가족 이상 60만원이다. 개인은 성인 20만원, 청소년 15만원이다. (041)841-5050

이상연 기자

## 포교원, 어린이청소년 중심도량 11곳 선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차 어린이청소년 포교 중심도량 현판 전달식 및 우수 중심도량 지원품물 전달식’을 시행했다.

포교원은 이날 안양 한마음선원, 서울 도선사 등을 비롯해 어린이청소년포교의 핵심이 되는 중심도량 28곳을 추가 선정해 현재까지 총 111곳을 중심도량 사찰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사찰 스님들이 △어린이청소년어린이집 마련기금 지원 △불교서적 및 불교용품 할인판매 △어린이교사 및 인력 지원 등에 관한 포교원의 현실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은정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8월 3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8월 4일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신 치유프로그램

#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 템플스테이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훈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충혼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39회(20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 ☞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 ☞ 스님의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엔터테인먼트 선무도 공연단 “사천왕”  
공연시간 : 오전 11시, 오후 3시

※ 연 제 : 2011년 07월 24일 ~ 2011년 08월 20일 (4주간)

※ 모 집 인 원 : 매주 일요일 10시~15시 입소, 토요일 12시 퇴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대 상 : 초등학교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 려 회 비 : 1주-49만원 · 2주-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1-021211 (예금주: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운동복·운동화·모자·개인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기기)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744-1689 / Fax 054)775-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한 볼 규 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 교육프로그램 : 1. 건강회복·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 4. 정서치유 : 명상치유,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치유, 무용치유, 음악치유(판소리, 전통악기), 생태체험치유
- 5. 교양수업 :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 << 일 과 표 >>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5:00	기상	10:00	선무도 수련	13:00	독서와 사색
5:30	새벽 예불·좌선·행선	11:00	108배 철회기도	14:00	승마, 다도, 활쏘기, 선무도, 치유프로그램
6:30	아침 공양(주 1회 발우공양)		·자아를 찾는 명상	16:30	울림(도량 청소 및 정리)
8:30	영어회화·불교 강의	11:30	점심 공양	21:00	점말 및 취침

1500년 전통사찰·선인원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화랑사관학교